

長期計劃成案은

중요한業績

“果敢한 투자면에선

未洽”



李光榮

〈韓國日報특집과학부장〉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에서 「기술주도」의 경제사회발전이라고 하는 큰 정책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배경이나 여건의 조성은 어느때 보다 중요한 일로 대두되었다.

정부가 2천년대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풍토조성」부분을 따로 정해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 풀이된다. 이런 뜻에서 과학기술처가 올해 한국과학기술원에 용역을 주어 서울대 박승재 교수, 고려대 김정흠교수, 경기공업개방대 김호근학장, 국민대 이가중교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조영 사무총장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과학기술풍토조성부분 장기계획(안)은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 장기계획은 2천년대 고도산업복지국가 건

설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모두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의식 구조가 개선되어 생활의 과학화·합리화·생산화를 몸소 실천하는 기풍이 진작되어야 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민역량의 결집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생활 과학화 운동의 심화확대는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연구개발 여건조성, 국민생활 과학화운동의 실천목표와 추진방법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연구개발 여건의 조성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직결되는 문제로 다분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국민생활 과학화운동이 비교적 실천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풍토조성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6월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이 설치되면서부터라 볼 수 있다. 그 후 이 사업은 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에 삼입되어 실행에 옮기게 됐다.

초기의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의 성격은 이미 구축된 과학기술 기반위에서 과학자·기술자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을 고조하며 과학기술 교육을 간접적으로 향상 시킬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방식의 함양, 국민생활의 과학화 및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같은 목표아래 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 발명 실용신안 활동의 강화 ▲ 학회활동 육성강화 ▲ 과학기술개발 공로자에 대한 상훈 ▲ 재외 한국과학기술자협회 조직육성, ② 과학기술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 국내의 우수 과학자의 연고지및 모교순방강연 ▲ 과학기술문고 발간사업강화 ▲ 과학영화필름 라이브러리 설치운영 ▲ 청소년 과학공작품 개방 보급, ③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 생활과학 아이디어의 모집보급 ▲ 과학기술 진흥재단의 설치운영 ▲ 매스컴 활동을 통한 과학기술의 보급 ▲ 과학기술 전람회개최 사업

을 벌여왔다.

이들 사업은 73년부터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으로 발전했다.

당시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의 기본방향은 ① 모든 국민의 사고와 생활습성을 과학화하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며 과학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과학적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② 국민 각자가 한가지 기술과 기능을 익혀서 국가개발에 기여하고 자기 삶의 향상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기술과 기능의 습득을 촉진한다는데 두었다.

그리고 주요 추진사업으로 ▲ 과학필름 도서관 설치운영 및 우량과학문고 발간모집 ▲ 과학기술 교육및 기능훈련의 강화 ▲ 주부및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한 과학기술 계몽보급 ▲ 농어민에 대한 새마을 기술지도사업을 펼쳤다.

오늘의 전국민 과학화사업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현 전국민 과학화 사업의 이념은 합리와 능률및 창조를 정신적 기조로 하고 생활의 합리화와 생산의 능률화및 사고의 창조화를 실천적 목표로 과학선진조국 건설이란 골(Goal)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처와 산학단체를 통해 추진된 전국민 과학화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전국민 과학화 사업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진흥 재단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① 과학기술진흥시책연구 ② 학회학술활동 ③ 과학기술 정보교환및 국제협력 ④ 과학기술문헌발간 ⑤ 국제학술회의 개최 ⑥ 과학기술 전문도서실운영 사업등을 펼쳤다. 과학기술진흥시책 연구사업으로 ▲ 회원단체장간담회 3회 연구 2건 ▲ 과학기술교육연구 2건, 학회학술활동 사업으로 ▲ 학술발표지원 82회 ▲ 학술지방간 지원 2백회 ▲ 국제기구참여 4회, 과학기술정보 교환국제협력사업으로 ▲ 과학기술 정보네트워크운영 2회 ▲ 국제협력활동 2회 ▲ 유네스코 네트워크 워크숍 4회를 실시했다. 또 과학기술문헌발간

사업으로 월간 과학기술 종합지 「과학과 기술」을 12회 발간했으며, 국제학술 행사로는 ▲ 8국 내외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 3회 개최 ▲ 제 1회 국제대기환경 학술회의 개최 ▲ 제 4차 동남아 태평양 공학단체연합회 총회및 지역 워크숍 1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밖에 제 1회 과학기술교육 개선사례발표회와 과학기술 봉사단을 통한 과학기술의 대중화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과학기술 진흥재단이 올해 벌인 주요 사업은 크게, ①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② 과학기술 순회계몽 보급사업 ③ 과학영화필름 라이브러리사업 ④ 원로과학자 지원사업 ⑤ 전국우수 과학교사 연구단지및 산업시찰 ⑥ 엑스포85쓰쿠바 과학박람회 참관을 꼽을 수 있다.

올해 한국과학기술 진흥재단이 벌인 청소년과학 경진대회는 ▲ 모형항공기, 공작경진대회 3회(전국대회 10월 6일 여의도중학과 여의도 체육공원서) ▲ 과학상상 그림그리기대회 1회(전국대회 7월 14일) ▲ 미래과학 글짓기대회 1회(전국대회 7월 4일) ▲ 모형자동차 경진대회 2회(전국대회 11월 10일 경기고교서) ▲ 과학상자 조립경진대회 3회(전국대회 11월 24일 서울북공고서) ▲ 라디오 조립경진대회 1회(전국대회 11월 24일 서울북공고서) ▲ 과학실험경연대회 1회(시·도교위대회 진행 6월 20일~11월 20일) ▲ 산수/수학 경시대회 1회(학교대회 진행 9월 10일~11월 30일) ▲ 과학독후감발표 대회 6회(학교대회 마치고 시·도교위 대회 진행 9월 10일~10월 10일) ▲ 퍼스널 컴퓨터 경진대회 3회(전국대회 4월 21일)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과학차를 이용한 과학기술순회계몽보급 사업으로 ▲ 초등 학교순회계몽 43개교(참가인원 학생 1만6천 1백44명, 교사 4백 51명) ▲ 지역사회영화상영 5회(참가인원 1천 6백명) ▲ 여름학교및 행사지원 7회, 과학영화 필름 라이브러리사업으로 ▲ 과학영화필름더빙 녹음및 마그네틱코딩 18권(2백 19분) ▲ 필름 시사및 감수회의 1회(9월 24일) ▲ 필름대여 3백회 ▲ 출장상영 59회를 실시했다.

또 원로 과학자 지원사업으로 윤일선, 최기철, 김동일, 권영대, 현신규, 조백현, 최이순, 정문기 씨 등 15명의 원로과학자들에게 월25만원씩 보훈금을 지급했고 전국 우수과학교사들에 대한 연구단지 및 산업시찰(1백96명 7개연 3기관) 등 사업을 폈다.

중앙기상대·국립천문대·국립과학관·한국과학기술원·한국에너지연구소·한국동력자원연구소·한국표준연구소·한국기계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소·한국화학연구소등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기관을 통한 과학기술 지식보급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국립과학관은 ▲ 상설 전시실을 운영하면서 제31회 전국과학전람회와 제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등의 입선 작품을 전시하고 ▲ 과학기술지식보급을 위해 과학영화상영(7백70회) 주말 과학강연회(42회) 과학동산(2회) 공개과학교실인 학생과학교실(1천명) 컴퓨터교실(1천5백60명)을 운영 큰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총무처·법무부·국방부·문교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보사부·노동부·문화공보부·산림청·전매청·농촌진흥청·수산청·공업진흥청·특허청·철도청·해운항만청등 부처별로 기관별 특성에 맞게 각종 과학기술 풍토 조성사업을 벌였다.

한국일보사가 82년부터 벌여온 식생활개선 캠페인 제4차년도를 맞아 올해 한국인 체력을 높이는 이자를 주제로 전개한 운동도 특기할만 했다. 올해는 특히 세계적인 식품영양학자인 미국 MIT의 N·S·스크림쇼 박사를 초청 특별인터뷰와 함께 서울 힐튼호텔컨벤션룸에서 3천여명의 청중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인의 영양과 질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을 주제로 특별대중 강연회(11월 22일)를 가졌다.

과학기술풍토조성사업이 이제 뿌리를 내린 셈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과학기술 풍토의 조성은 이제부터이다. 합리·능률·창조라고 하는 전국민 의식의 과학화의 영역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연구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따라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풍토조성은 투자에 비례해서 알찬 결실이 맺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올해의 과학기술풍토조성사업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과학화 사업 추진 내용

대 상	사 업 명	주 관
일반시민	1. 과학영화 제작활동 2. 과학주간행사	과학기술처 13개시도·교육위원회
과학기술인	1. 학회학술활동지원 ○학회지발간 ○학술발표회 ○국제분담금(국제회비) 2.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 ○추계워크숍 ○하계심포지움 ○추계워크숍 3. 국제대기환경학술회의 4. 원로과학자 지원 5. 과학의날 행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과학기술처
청소년	1. 우수과학어린이 포창 2. 과학자 순회계몽 3. 과학영화필름라이브리우영 ○과학영화필름순회(대어)상영 ○필름 구입·더빙 4. 과학동산 5. 공개과학교실운영 ○학생과학교실 ○컴퓨터 교실 6. 주말과학강연 7. 과학영화상영 8. 상설전시실 운영 9. 전국과학전람회(학생 일반 교사) 10.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11. 시설공개 및 천체관측회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진흥재단 " " 국립과학관 " " " " " " 국립천문대
과학교사	1. 과학기술교육개선사례발표회 2.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학사심포지움 3. 과학기술교육자포창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진흥재단 문 교 부